"날씨에도 연기법 적용돼요"

산문밖의 禪

기상예보관 장익순 씨

기상 재해·지구 온난화 환경훼손이 낳은 재앙

기상관측 25년째 외길
세종기지서 남극기상도 관측
인공강우 자연질서 파괴 우려

인류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지구의 기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해 왔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 한 점 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기도 한다. 대지에 비가 내리고 다시 태양이 비추면 만물이 생장한다. 오랜 세월 끝에 생명이 다해 흙으로 돌아간 생명체는 빗물에 쓸려 강으로 바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로 눈으로 내려오는 일을 되풀이한다.

자연, 기상의 변화는 이처럼 연기의 진리를 그대로 말없이 보여주는 인간의 스승이며 인간 삶 자체이기도 하다.

일체는 인연따라 생긴 것으로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서면 무상인 채로 상주(常住)이며 무아인 채로 진아(眞我)인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일체가 공하나 그 공 또한 공이 아닌 것처럼 우주와 생명, 세계와 인생은 연기의 반복인 것이다. 기상의 변화도 연기법으로 설명되어진다.

그 중중무진한 연기의 세계를 장익순씨(47·동두천기상대 예보관)는 지난 25년간 실지로 경험해 왔다.

그는 "기상관측은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지중온도, 철관지중온도, 증발량,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등 많은 수치의 조사를 통해서 짧게는 내일을, 길게는 한주, 한달, 계절의 일기를 예보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요"라고 설명한다.

비는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바람은 왜 부는 것일까? 비를 적당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질문들은 그를 기상예보관의 수행길로 이끈 풀리지 않는 화두와 같은 것이었다.

"제주도 기상대에서 첫근무를 시작했는데 섬사람들의 기상변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제주 어부들은 기온과 풍향, 기압배치가 어떠해야지 고기잡이 나가기에 적당한가를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늘 제가 근무하는 기상대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기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삶이 기상변화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 기상대 근무를 시작으로 서산기상대, 김포공항기상대, 보령기상관측소, 중앙기상청 산업기상과 근무를 두루거친 그는 지난 90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남극 세종기지에서 남극의 기상을 관측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머리속에는 지리가 아닌 날씨로 본 전국지도가 그려져 있다.

기상관측은 1 더하기 1이 항상 2일 수만은 없다. 때론 3이 되고, 4도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기상이다. 기상관측은 단순한 관측의 결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기상관측관의 오랜 경험 축적이 더하는 과정을 거쳐서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84년 서울 망원동에 한강이 범람하는 큰 수재가 발생했었다. 인력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상관측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폭풍우 끝에도 햇빛은 나고, 수재 후에 더욱 강화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보며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기상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첨단의 과학입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그 지방의 강수량에 따라서 몇 개의 하수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강수량은 500㎜인데 하수구는 200㎜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기상현상이 상품의 판매 및 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기상예보나 이상기상 현상의 출현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시도하려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의 일상만 보더라도 비가 오면 우산없이는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허허허."

장익순 기상예보관은 자신의 기상철학을 덧붙여 기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에게는 기상학의 발달과 더불어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공기중에 수증기가 많아 구름은 충분히 있지만 비가오지 않거나 조금밖에 오지 않을 때 구름속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등 빗방울을 잘 형성되게 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비가 오게 하거나, 적게 오는 비를 많이 오게 하는 인공강우의 방법등이 이미 외국 여러나라에서 시도되어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공강우의 원리를 응용해 우박의 억제나 공항내의 안개를 없애는 일, 태풍의 강도 감소등 다양한 응용기술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할 대법칙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파괴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좋은 방면으로만 사용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늘 생각해야 하니까요."

선업은 더 큰 선업을 낳고, 악업은 더 큰 악업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과 자연에 두루한 큰 진리라고 장익순씨는 강조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 홍수, 폭염, 혹한 등의 기상재해와 오존층파괴, 산성비,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은 다름아닌 우리 인간이 자연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인간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가 자연에 의해 다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이은자 기자

4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문 불교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사대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사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요.

〈최용권·영남대〉

답 창조니 진화니 하는 말부터가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진화와 창조가 다 한마음의 나툼입니다. 굳이 그것을 나눈다면 창조란 한 생각 일어난 것이고 진화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내고 움직이는 게 다 진화이면서 창조요 창조이면서 진화인 것입니다.

사대는 어디서 비롯되었느냐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유위와 무위가 둘이 아니고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며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위와 무위, 마음과 물질을 둘로 보는 한 서로간에 들고나는 도리를 상상할 수도 없을게고 그걸 모르는 한 물질세계의 처음이 어디냐는 의문엔 결코 답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령 사대의 원천을 물질계의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의 원천은 또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물음은 끝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현대과학이 물질과학으로 남아있는 한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지요. 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심성과학이라야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이 다 한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너와 나의 몸뚱이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두두물물이 다 한마음의 나툼입니다.

물론 현상계에서 보면 너와 나, 두두물물이 뚜렷이 다르겠지만 근본 자리에서 보면 둘이 아닙니다. 나툼이자 공이요 공이자 나툼이니 그야말로 진공묘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 우주전체는 너나 할것 없이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식 공체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둘이 아니기에 마음은 걸림이 없이 사대로 통신이 되고 자력 광력 전기력이랄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자재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는 마음의 꽃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비법이 있습니까

문 스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하는 도리를 일러주신다고 들고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공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데 병이 낫는 어떤 특별한 방편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청문·경남 양산시 유산동〉

답 무슨 비방이라도 있는 줄로 아시는 모양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살아가는 도리와 별개인 것도 아니지요. 불교라고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도리와 거기서부터 갖가지로 벌어진 이 세계의 돌고 도는 이치를 직속으로 일러준 진리의 말씀 그것이지요.

그러니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치가 그대로 불교요 불교가 곧 살아가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마음 따로 병 따로이겠습니까?

예컨대 내 몸뚱이 어느 한 부분에 고장이 났는데 그게 내 몸과 따로 따로 생긴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지요. 그러니까 병을 나와 따로 볼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은 나와 둘이 아닌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 몸에 병이 난 것도 다 내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겠지요? 거기서 나온 것이니 해결하는 것도 거기서 하라고 말입니다.

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병을 고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병이 나게 한 것도 그대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그대이니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고 관하라고 일러줄 수 밖에요. 가령 '주인공! 병이 나게 한 것도 당신이니 낫게 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하고 밀어놓으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도 좋지만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진하디 진한 마음으로 말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나와 거울에 비친 나의 대화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그랬듯이 돼지를 건질려면 돼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뱀을 건질려면 뱀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건질려면 병과 내가 둘이 아닌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가야 내가 나를 해치지 않듯이 병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걸 공부 삼아 일러주니까 어떤 분들은 날 보고 '저이는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몸뚱이와 마음을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란 참으로 보배같아서 때로는 약사여래도 되고 때로는 지장보살도 되고 도무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유화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음공부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닦는마음 밝은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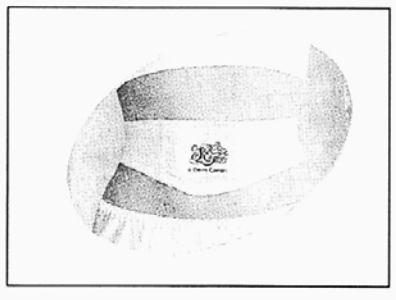
김재웅 지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人)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